

하루를 시작하며



권희진
디자이너블루 서점 대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시대의 시작이 된 해로 기억될 2020년도 이제 한 달 여밖에 남지 않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불러온 여파 때문에 어쩔 수 없긴 했지만, 올해 제주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책과 관련한 굵직굵직한 행사와 이벤트들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축소된 점은 못내 아쉬움이 남는다.
작년에 도내 외 200여 팀의 창작자와 책방, 출판사들을 모아 개최됐던 '제주 북페어'는 체계적인 준비와 깔끔한 진행으로 참가자와 관람객 모두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그래서 올해 역시 많은 기대를 모았지만

2020 책으로 가득한 섬, 제주를 돌아보다

당초 4월 말이었던 일정을 한 차례 연기한 끝에 결국 취소되고 말았다. '대한민국 독서 대전'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 독서 대전'은 문체부 주최로 1년에 한 번씩 하나의 도시를 선정해 책을 매개로 한 다양한 행사가 이루어지는 큰 축제인데, 올해 개최 도시가 제주였다. 이에 제주시는 연초부터 '책 읽는 도시, 제주'를 선포하고 야심 차게 준비했지만, 가을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좀 나아지리란 기대가 무색하게 행사가 임박할수록 오프라인으로 감행하기 더 어려운 분위기가 돼 버렸다. 결국 대면 행사들을 전면 취소하거나 온라인 진행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주최 측과 참가자 모두 혼란을 겪으면서 모처럼의 책 축제가 더욱 안타깝고 아쉽게 마무리됐다.
이런 큰 행사들이 제대로만 치러졌다면 분명 제주의 동네 책방들과 독서 문화가 한 걸음 더 도약하는 계

기가 됐겠지만, 오히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였기에 책방들 스스로 움직여 마련한 소소한 기획과 행사들이 빛을 발하기도 했다.
먼저 제주시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책방예술제 책심[심:]을, 서귀포 문화도시센터는 일명 '문화도시 책방데이'를 개최하며 도내 27곳의 책방들이 각자 기획한 전시회, 낭독 공연, 북 토크 등의 문화 행사와 이색 체험을 통해 독자와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사)한국작가회의에서 지원하는 '작가와 함께하는 작은 서점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책방들의 작가 북 토크 프로그램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고, 한국서점조합연합회가 주관하는 '심야책방'에도 도내 5곳의 서점이 선정돼 매달 마지막주 금요일 밤 10시까지 불을 밝히고 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지역서점 문화 활동 지원 사업'에 처음으

로 제주 서점이 5곳이나 선정된 점도 고무적이다. 디자이너블루를 포함한 5곳의 서점들은 8월부터 11월까지 북 콘서트, 작가 강연, 전시회, 영화 상영 등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생활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기획, 진행하여 책방 모임이나 책 관련 이야기에 목말랐던 사람들에게 작은 단비가 돼 줬다.
아마 제주 책방들의 이런 다채로운 활동에 직접 참여해본 분도 있으실 수 있고, 이 글을 통해 처음 듣는 분들도 기실지 모르겠다. 적극적인 홍보나 대면 행사가 많은 부분에서 축소됐던 탓에 동네 책방들의 활동들이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2020년 제주는 정말 책으로 가득한 한 해였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내년에도 제주의 동네 책방들은 제주를 책으로 가득한 섬으로 만들기 위해 작지만 단단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것이다. 그런 동네 책방들을 많이 응원해주시면 좋겠다.

사설

이렇게 투자기업 못살게 굴어도 되나

원희룡 제주도정의 독단과 독선이 우려스럽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도개비 방향이를 꺼내더니 거침이 없습니다. 마치 마법의 방망이처럼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한 번 휘두르면 다 나가떨어지는 형국이니 말입니다. 원 도정의 도개비 방향이가 어디까지 미칠지 염려됩니다. 제주오리관광단지 조성사업도 원 도정의 도개비 방향이에 여지없이 무너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3일 도청 기자회견에서 '청정제주 송악선인 실천조치 3호'를 발표했습니다. 원지사는 "오리관광단지는 사업자가 제수입하는 사업계획이 기존 사업계획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면 앞으로 승인받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원지사는 "현재 사업계획으로는 자본조달과 사업 수행능력 등 설득력이 부족하고 청정제주와도 조화되지 어렵다. 사업 승인에 필요한 기준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지사는 "사업자는 그동안 해외투자나 레

저사업 경력이 전무하다"며 사업 추진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물론 원지사가 제주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인만큼 여러가지 걱정할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이 라든가 청정제주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얼마든지 꼬집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원지사가 투자기업의 수익성까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기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윤을 남기는 영리가 목적이겠습니까. 이익이 안되는 사업에 투자할 기업은 아무도 없습니다.
원지사가 이제와서 사업의 수익성 등에 대해 운운한 것은 '도다 큰 의도'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온갖 구실을 내세워서 발목을 잡겠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냥 시간만 끌게 아니라 오리관광단지 개발은 안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밖으십시오. 행정이 투자기업을 원활하지는 못할망정 왜 이렇게 못살게 굴는지 안타깝습니다.

열린마당

나 하나 꽃 피어 이루는 청림 꽃밭



현유리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공직 사회의 기강을 확립하자는 취지로 발의된 '청탁금지법'이 제정돼 시행된 지 4년이 지났다. 법안을 발의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으로도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 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를 제한함으로써 공직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청렴 사회로 나아가는 큰 변화였다고 할 수 있다.
'일어탁수'라는 말이 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 물을 다 흐린다는 뜻의 사자성어로 한 사람의 그

릇된 행동으로 여러 사람이 해를 받게 되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우리 사회에도 한 사람의 그릇된 행동이나 생각이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허다하다. 반대로 한 사람의 선행이 사회 전체를 선한 사회로 만들 수도 있다.
일부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속에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저하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의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강 의원은 "개발공사가 200억원 기부했지만 사내 유보금의 1/10수준"이라면서 "1/4정도인 500억원 정도를 통크게 기부해 전 도민 재난지원금으로 예비금으로 보유했다가 푼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첨언.
오은지지사
제주 관광객 하락세 전환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추세로 인해 이달 들어 전년 수준을 넘었던 제주 관광객 수가 다시 하락세로 전환.
24일 제주관광협회에 따르면

뉴스-in

"500억 정도 통크게 푼다면 좋았을 것"

재난지원금 필요성 제기
○...코로나19 재확산세 속 내년 전도민 대상 제주형 재난지원금 지원 필요성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돼 주목.
행정자치위원회 강성민 의원은 24일 열린 제389회 제2차 정례회 내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본예산에 재난지원금 예산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을 주장.
특히 강 의원은 "개발공사가 200억원 기부했지만 사내 유보금의 1/10수준"이라면서 "1/4정도인 500억원 정도를 통크게 기부해 전 도민 재난지원금으로 예비금으로 보유했다가 푼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첨언.
오은지지사
제주 관광객 하락세 전환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추세로 인해 이달 들어 전년 수준을 넘었던 제주 관광객 수가 다시 하락세로 전환.
24일 제주관광협회에 따르면

이달 20일까지 제주를 찾은 내국인은 하루 평균 4만516명이었다. 최근 3일 동안 3만8062명으로 감소.
현회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 재확산 추세로 단체관광객이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이번 사태가 조기에 잡히지 않을 시, 도내 관광업계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전언.
김현석지사
사립학교도 종합감사 관심
○...국회에서 초·중·고 사학비리 적결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돼 눈길.
국회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은 지난 23일 해당 법률안을 발의하며 "교육감이 매년 사립학교 종합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감사를 거부·방해할 경우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
제주에선 사립학교들이 법정부담금을 미납해 3년간 100억원이 넘는 혈세를 지원 받지만, 교육청이 진행하는 경영평가에 일부 사립학교가 반발하며 논란.
송은범지사

평화로 중앙화단 넘는 연쇄 사망사고 충격

평화로에서 중앙화단을 넘는 교통 사망사고가 연쇄적으로 발생해 충격적이다. 이달에만 평화로 한 장소에서 중앙화단을 넘어가는 2건의 교통사고로 3명이 사망했습니다. 최근 사고는 평화로내 에일을 어울리 교차로 인근지역(제주시방향 약 500m 지점)에 화단형 중앙분리대로 설치한 도로를 주행중인 차량이 화단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며 일으킨 겁니다. 실제 지난 21일 승용차가 화단을 넘어가면서 반대차선서 마주오던 대형 택시와 정면 충돌해 두 차량 운전자 2명이 숨졌고, 앞선 지난 4일에도 트럭운전자 1명 사망에 2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극히 이례적일만큼 한 장소에서 제주시 방향으로 달리던 차량들이 중앙화단을 넘는 사고를 잇따라 일으켰습니다. 충돌사고인데다 맞은편 차량이 반대차선으로 넘어올 줄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다보니 피해도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연쇄 교통사망사고로

평화로내 화단형 중앙분리대를 철재 가드레일로 교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도가 과거 추진하던 예산 부담과 미관 저해 등을 이유로 중단한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교체사업을 재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화로 화단형 중앙분리대를 가드레일로 교체하는 사업은 지난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 29km 구간중 13km만 이뤄졌습니다.
주행도로는 미관보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평화로 중앙화단을 넘는 대형사고가 연쇄 발생하면서 일부 운전자들 사이엔 1차로 운행을 피해야 한다는 얘기가 자나올 정도입니다. 도는 화단형 중앙분리대 교체사업에 적극 나서 사고다발도로 '악명'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평화로는 하루 평균 통행량 약 10만대에 달할 차량이 반대차선으로 넘어올 경우 과속과 차선변경 등으로 사고위험이 매우 높은 도로로 변하고 있음도 유념해야 합니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고
김계천(前 삼양사 부장) 어머니 남평 문씨 인숙(향년 86세)께서 서기 2020년 11월 23일 10시 55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0년 11월 25일(수요일)
▶발인일시: 2020년 11월 26일(목요일) 오전 9시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9빈소
▶장 지: 양지공원 →해안동 선영
아들 김계천, 며느리 장애란, 계원, 김은정, 딸 김순희, 사위 김인완, 미희, 송방림, 손 김동균, 외손 김우정, 동건, 송준호, 정연, 송규진, 희연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연안김씨 공하(향년 97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 11월 25일
아들 오중훈, 며느리 백행자, 딸 오갑순, 사위 현정웅, 병순, 현강웅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신천강공 동혁(향년 37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 11월 25일
부인 황정아, 아들 강규빈, 딸 강서우

재산상속 한정승인 공고
성명: 양고경군(1964. 7. 18생)
최후주소: 제주시 서광로18길 16 (삼도일동)
상기자는 2020년 8월 3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은 2020년 11월 18일 제주지방법원 2020-단303호로 상속원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다.
이에 민법 제10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와 수증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는 정산에서 제외됨을 최고합니다.
- 다음 -
1. 공고기간: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2. 연락처: 제주시 서광로18길 16 (삼도일동)
2020년 11월 25일
공고인(상속원정승인자) 변정희, 고문향, 고문선, 고현호

농지. 전. 필수농업 고민
한번 식재로 수년간 수확
퇴직후 심신마음 작물과 소풍
제주대학교사리뿌리와 등글레뿌리
퇴밭 전, 밭, 식재 관리 수확안내
15kg 1박스 15평-20평식재
1박스당 택배비포함 58,500원
심는방법, 관리와 수확 상세 안내
상담전화 010-2691-9316 064)783-8987
농협계좌 901055-52-018318
제주약용작물 품종연구센터 한기림농장 대표 이기승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一 祚
누수방지, 가시식, 청진기식 수도매관, 녹물청소
신축/중축/리모델링/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지붕개량/옥상방수/페인트공사/창문/도어문/대문 교체
블랙이장/싱크대/신발장/도배/장판/몰딩 시공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문의 010.7599.6234